

# 삼과 蔘 그리고 세월의 기다림 雲住宗 蔘

운주종삼은 예부터 5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산삼 재배법을 그대로 재현한 산양산삼 브랜드이다. 운주종삼이란 雲住山의 기운을 받은 蔘 종의 삼, 宗 으뜸되는 蔘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운주산(雲住山)은 구름이 드리워 있는 산이라는 명칭과 어울리게, 맑고 강한 기운이 모여 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예부터 가파른 경사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세로 백제 멸망 후에는 도피처로, 조선시대에는 의병활동의 근거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운주산의 청렴함과 민족의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겨운 산자락에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정성들여 삼을 키우는 운주가(雲住家)가 자리하고 있다. 운주가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이어온 500년 넘은 전통 산양삼 재배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운주종삼"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로 최고의 산양삼을 키우고있다.

운주종삼은 雲住山 운주산의 기운을 받은 蔘 종의 삼, 宗 으뜸되는 蔘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운주산양삼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사람이 아닌 자연의 손에서 길러지며, 운주산의 강하고 깨끗한 기운이 키워내는 자연의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운주산(雲住山)은 구름이 드리워 있는 산이라는 명칭과 어울리게, 맑고 강한 기운이 모여 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예부터 가파른 경사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세로 백제 멸망 후에는 도피처로, 조선시대에는 의병활동의 근거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운주산의 청렴함과 민족의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겨운 산자락에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정성들여 삼을 키우는 운주가(雲住家)가 자리하고 있다. 운주가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이어온 500년 넘은 전통 산양삼 재배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운주종삼"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로 최고의 산양삼을 키우고있다.



(주)雲住 김원겸 대표

운주가를 이끄는 김원겸 대표의 蔘과의 인연은 너무도 힘든 인생을 통해 맺어졌다. 어렸을 적부터 독립심이 강했던 김대표는 다른 이들 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요리사로서 맨바닥 일부터 시작하여 호텔 주방장까지 올라간 후에도 또 다른 일에 도전, 부동산, 건설 등 일의 영역을 확장 20여년을 씩없이 달려가지만 했다. 그러던 중 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확장하였던 사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김 대표에게 닥친 마지막 시련은 부인과의 사별이었다. 병상에 빠진 그는 이곳 저곳을 떠돌며 필황하다 초치원에 인연이 닿아 가깝게 지내던 형님의 농장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삼을 기르시던 산에 아침 저녁으로 오르며 몸을 추스리기 시작했다.

어느날 김 대표는 약동과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심신을 달래기 위해 산에 오르면

중 우연히 가슴이 탁 트이며 편해지는 기분 을 느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주산의 기운이 모여있다는 산신터였다. 김 대표는 부처님께서 수행할 수 있는 인연터를 주신것에 감사하며 이후 그터의 앞뜰에 작은 집을 짓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단절하고 수행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지나간 과거를 하나하나 씻어 내듯 매일 부처님, 산신께 기도드리며 산의 蔘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간혹 기도하기 위해 올라오는 사람들을 만나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을 한지 3년 정도 지나자 각종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어느날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 옆을 스치

여러 마리가 운주가에 들어와서 놀다가 급하게 산으로 달려갔다. 꿈이라 하기에는 너무 선명해서 무슨일이 났는가 하고 침출 같은 밤에 멧돼지가 어디가서 무얼 하는지 확인까지 하러 간적도 있었다. 물론 이후 멧돼지가 산에 올라가서 홀연히 없어진 곳에 삼을 키웠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너무 힘든 사회생활로 인해 몸이 안좋아져 지금부터 17년전 삼을 복용하고 기운을 회복한 김 대표와 蔘과의 인연은 더욱 각별 했다. 삼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4-5년생 삼이 다 썩어 없어진 적도 있었다. 정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다시 정성을 들여 삼을 키웠다. 삼을 키우던 초기에는 몸의 병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무릎이 너무 고통스러워 절고 다녔다. 신기한 일은 운주산에 들어가 삼을 심으면 어느덧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돌아 산속에서만은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산속에서 작업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분도 섬뜩해서 너무 무서워 산을 내려가는 경우가 잦았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蔘과 산을 보호하는 보호신장들의 나타이라 여기고 기분 좋게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도하는 마음을 모르는 직원들 사이에는 아주 지독한 신비라고 한때는 소문난 적도 있었다. "산의 기운이 좋고 부처님 가피와 산신님의 도움으로 산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기전 항상 부처님과 산신님께 정성스럽게 기도드립니다. 그냥 편안해 지죠." 김 대표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양삼을 자연삼과 같이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구름이 많고 울창한 숲은 산삼에 알맞은 습도와 채광을 조절해 주며, 또 북향에 위치하여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50년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은 부엌토양과 경사가 급한 가파른 지세로 배수가 용이하여야 삼의 뿌리가 쉽

게 썩지 않는 등 등의 조건이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운주산이다. 삼이 천연적으로 자라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김 대표의 불심은 남다르다. 운주산에서 삼을 심기전 기도드리기 시작한 후 다음날 갑자기 머리를 깎고 출근하였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니 "마음을 내어 머리를 깎고 생활은 속세생활이지만, 출가를 안했어도 마음속으로 수행생활을 하며 부처님을 모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웃도 먹물



웃을 입고 스님 같은 생활을 시작하였다. "염불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항상 삼을 키우면서 기도하고,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올리며 이후 삶은 불사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꼭 절을 지어서 회향하고 싶습니 다." 이러한 마음으로 삼을 키우다 보니 운주가에는 끊임 없는 삼 인연들이 이어졌다.

인연 맺은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아낌없이 蔘을 보시

김 대표는 스님들께 삼 공양을 올리는 것을 즐겨하였다. 상업적으로 팔기 전에 인연 있는 스님들이 수행하다 몸이 안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산에 올라가 삼을 캐다 드렸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통하였는지 蔘을 복용한 스님들마다 효험을 보시고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주위에 蔘이 필요하신 분과 인연을 맺어 주셨다. 더욱더 운주가의 蔘 사업이 번창함은 물론이요 삼보님께 공양올리니 이러한 공덕은 쌓이고 쌓여만 갔다. 이처럼 운주종삼의 진가는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다.

운주가의 삼 재배면적은 제1농장 2만평, 제2농장 20만평이다. 이정도의 대지에 김 대표는 처음 삼을 심기 시작했을때 직접 혼자 작업하였다. 주위 지인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운주산만 올라가면 필필 기운이라는 김 대표 자신에게는 힘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길도 없는 곳에 곡괭이와 삼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蔘이 잘 자랄수 있는 한곳 한곳에 삼을 심었다. "부처님 가피없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산이 좋고 삼이 좋고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면 좋았습니다." 김 대표는 운주산 자락 삼역사를 다시 만들었을 것이라고 자랑 하면서 현재는 이렇게 16년 하니 현재 운주종삼이 800만주 정도 될 거라고 한다. 4-5년 蔘은 500만주, 16년 蔘은 300만주로 추정하고 있다.



蔘이 필요한 사람이 蔘밭에서 직접 캐어 가는 시스템 운영

럼 운주 蔘을 키우고 있다. 지금은 1년에서 16년까지 자연적으로 키워져 있고 삼을 심을 때 삼 간격을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게 넓게 심었다. 운주가에서는 蔘이 필요한 사람들이 방문하면, 직접 운주산에 있는 蔘밭으로 가서 삼 구입 당사자가 직접 삼을 캐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한한 일은 불경한 마음이나 평가 잘못 되면 그날 삼 캐러 가는 곳은 약간 삼이 작거나 좋지 않은 삼만 나오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오거나 정말 삼이 필요한 사람들은

좋은 삼들이 캐어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蔘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물결이 다양하듯이 삼도 그렇습니다. 밟으면 삼의 썩이 안나오고 삼이 썩으면 씨를 더 많이 맺습니다. 즉 자식에 대한 삼의 애착이라고 할까요. 안좋은 땅에 심으면 더 뿌리가 깊게 자라고 잔뿌리도 많이 생깁니다."



기도터에 있는 산림청 보호수

최상의 삼은 잔뿌리가 많아야 좋다. 잔뿌리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에 비하여 중국 삼은 잔뿌리가 별로 없다고 한다. "제가 낫은 생 최종 목표는 삼을 잘 키워 아픈 분들이 운주삼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 삶을 사시는데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사찰불사를 통하여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좋은 삼을 키울수 있는 운주산 같은 대지에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주 산양삼 (3년)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하는 산삼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특히 자연에서 온 산삼은 천종 즉 '하늘이 내려준 삼'이라 불릴 만큼 그 특별한함과 가치가 매우 뛰어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가 품이었다. 운주종삼은 천종에 가장 가까운 산양삼이다. 고려말기부터 이어온 500년 넘은 전통 산양삼을 재배 보급하여 모든 이들과 산삼의 건강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주산의 맑고 청정한 기운을 받아 최고의 산양삼만을 길러 내고 있는 운주가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 雲住宗 蔘

지를 가리는 산삼, 지형과 토양을 가리는 산삼은 농약, 비료 등의 인공적인 화학물에도 민감해 자칫 물러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땅의 기운과 양분 만으로 자라 그 효능이 더욱 뛰어난 천종삼처럼 운주종삼은 개갑 및 파종 이외에 그 어떤 최소한의 인위적인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이겨내며 자라는 삼만큼 좋은 것이 없으며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하고 깨끗한 우리삼을 길러내고자 천연 농약 조차 살포하지 않는 유기농 재배가 우리 운주종삼의 마음입니다.

## 제품소개

### 운주종삼 산양삼추출액

산삼 막걸리처럼 단순 상처 등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삼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홍삼이란 원래 발재배 작물인 수삼을 찌서 말려 그 저장성 및 그 약효 성분을 높인 것으로 분말 보다는 달여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화학 변화로 아메 좋은 약리성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주종삼의 홍삼액은 약 80ml로 5%의 정회 홍삼을 함유하고 있어 가볍게 차로 드시기에 적합합니다. 삼의 효능은 산삼 몇 뿌리라도 느낄 수 있지만 장기간 소량 복용도 면역력 증강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 산양삼막걸리

상처 등의 이유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산삼 등을 모아 만든 막걸리입니다. 기존의 산삼 막걸리와 다르게 산삼의 비율이 높아 순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럽게 입안에 감도는 산삼의 향이 여성스러우면서도 건강한 느낌으로, 다른 산삼 막걸리에 비해 더 달콤한데

이 산삼의 사포닌 성분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삼에는 강장 성분이 들어 있어 안주로 먹을 때는 체내 알콜 제거 속도를 2배 가량 촉진해주고 술로 담가 마시는 경우 알콜을 순화시켜 숙취가 없습니다. 운주종삼 막걸리는 비율을 낮게 하거나 중국 산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운주산양삼 만을 듬뿍담아 만듭니다. 향과 맛으로 일반 탁주의 단점인 텃텃한 뒷맛이나 특유의 냄새가 없고 곡주 음주 후 느끼는 불쾌감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며 향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자체로도 추출액이 아닌 삼 그대로를 넣어 약간의 건더기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넘김이 좋으며 적당한 탄산의 청량감이 훌륭합니다. 삼의 깔끔한 산삼의 효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최상으로 맞춘 산삼 막걸리입니다.

### 산삼주

품질 좋은 운주 산양삼으로 만든 산삼주입니다. 산삼의 강장효과 속취가 없고 깨끗해 건강에도 이로운 술입니다. 기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드시면 산삼의 장기 복용 효과와 더불어 알코올의 혈액순환 효과까지 더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삼의 기운을 다 흡수하시려면 기름진 안주보다는 깔끔하고 담백한 안주와 함께 하세요.



www.sanyangsam.net www.woonjumall.com

(주)운주산삼랜드 雲住宗 蔘 ·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262-3 번지 TEL(041)868-8003 · 서울시 송파구 문정 2동 가든파인 Tool동 5층 409호 H·P 010-4706-3147